

제124호

발행일: 서기 2014년 8월 7일
 창간일: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02) 2244-3717
 070-8807-3717
 FAX: (02) 2243-1073
 E-mail: andongkimgu@naver.com



발행인: 김봉근회
 편집인: 김상원회
 채인: 김원회
 발행처: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화경동 112-49) 우 130-875
 홈페이지: andongkimc.kr

대동보 간행을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봉사(奉事)하시는 종친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勞苦)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열한(炎旱)입니다. 종친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빕니다.

불민(不敏)한 제가 제23대 대종회장으로 연임되어 종무(宗務)에 임한지도 벌써 2/4분기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종친회 관련 전국의 대소행사 참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종무(宗務)에 임하는 분야별 대종회 소위원회(회칙개정 7인 소위, 대동보편찬 6인 소위, 수권편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하며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관련 임원님들과 합심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한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 행사를 마무리하고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종친여러분에게 배포(配布), 보고(報告)드리게 되었으며 대종회 최대 사업인 대동보 편찬 간행업무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끝내고 수단(收單)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종회 업무란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차원에서 봉사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열심히 종무(宗務)에 협조해 주시고 있는 종친 및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친 여러분,

격려와 칭찬의 말씀은 아끼두지 마시고, 나누어 주시고 아직 수단지(收單紙)를 대종회로 송부(送付)하지 못한 소파종회는 업무 이행을 서

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동보 간행은 인터넷 족보(모바일 족보 포함)구축과 책 족보 간행을 병행(並行)하고 있습니다. 수단 입력 완료 후 수단지와 입력 복사본을 소파종회로 배분(配分)하여 교정(校訂) 하므로 정확한 수단(收單)을 할 수 있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수단에 참여하지 못한 종친이 계시다면 소파종회로 연락하여 수단(收單)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간혹 잘못된 허위(虛偽) 종사(宗事)의 정보를 입수하여 종친간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종회를 불신하며 오해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우리는 충렬공 선조님의 한 핏줄로 연결된 혈족(血族)임을 직시(直視)하고 종회(宗會)와 종친에게 누(累)가 되는지를 가려 사려깊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종친 여러분

종친회 업무수행에 실수와 오류가 있을시 즉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종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고견(高見)을 부탁드립니다.

유난히 건조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갑오년(甲午年) 삼복더위에 종친님의 건승(健勝)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祈願)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4年 8月 盛夏 大宗會長 凤會 拜上

大同譜 首卷 編纂會議 開催

2014. 7. 12(토) 대동보 수권편찬회의가 대종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종회장을 비롯하여 수권편찬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결정 사항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항목별로 검토하여 점검을 하고 완료된 사항은 수권 편집에 반영하도록 하고 미완사항은 계속 진행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대동보 수권의 가 편집을 용항 수권 편찬위 간사가 전담하여 완료하도록 일임하였으며 사진편집 및 협조 사항은 발용 위원에게 일임 하여 완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각 분야 별로 수권위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각 소파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빠른 시일 내로 수권에 수록할 자료를 작성하여 편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동보 수단지 취합 검토작업



2014. 6. 24 대종회에서는 각 소파별로 수단 완료된 수단지를 취합하여 검토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검토가 완료된 수단지는 대동보 편찬 대행업체로 이송하여 대동보 편찬 입력 작업을 합니다.

79년 기미 대동보 입력작업이 시작되어 소파에서 수단한 수단자 입력을 병행합니다.

입력 완료된 소파는 수단지와 족보입력 완성본을 배분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소파 담당자 또는 수단자 본인이 교정하고 대종회로 교정지를 보내면 재입력하여 편찬작업을 합니다.

아직 수단지를 대종회에 미송부한 소파는 빨리 서둘러 송부하여 검토작업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검토위원」

觀默(按)전대종회사무총장, 榮秀(翼)전대종회감사.

榮國(文)회칙개정 소위 위원장

안동김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구축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2014. 6. 18 15:00 안동김씨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구축 대행 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대종회 사무실에서 대행업체 <뿌리정보미디어> 한상억 대표와 대종회 회장님의 계약 서명으로 계약이 성사되어 대행 업체에서 대동보 간행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업

체 3개사를 선정하고 대종회에서의 시연과 업체 방문, 실사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서울 양평동소재 뿌리정보미디어사를 선정하고 제출된 견적서에 의한 가격 결정을 합의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뿌리정보미디어사는 청주한씨, 청송심씨, 강릉 김씨 등 많은 문중의 족보 간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우수한 회사로 우리 안동김씨대동보 간행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족보를 만들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렬공 김방경 탄신 800주년 기념 행사 백서 발간 배포



2014. 7. 3 안동
김씨 대종회에서
는 <충렬공 김방
경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 백서>를
간행하여 배포 중
에 있습니다.

우선 15개 각 소파에 종회원수에 비례하여 배분
과 종회장님께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3년 여에 걸쳐 진행된 경모제전 각종 행사를 모
든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는 백서이므로 최선
을 다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하였으나 독자들
의 기대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재정 형편상 계재된 사진을 모두 흑백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백서를 받아보고 경모제 행사를 회고하며 다시
한 번 충렬공 선조님의 위업을 경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422주기 호국대제 봉행



2014. 5. 11(일)
오전 11:00 충남 보
령시 성주면 성주
리 호국사에서 제
422주기 호국대제
가 250여 명의 참제

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대제의 초헌관은 유영렬, 아헌관은 김기열,
종헌관은 황진수님이 현직하였다.

보령시 행정국장 배두성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우리 안동김씨는 원주성에서 순직하신 문숙공 제
갑(提) 진주대첩의 영웅이신 충무공 시민(提) 탄
금대에서 순절하신 충민공 흠(翼)세 분이 배향되
어 있다.

이날 대제에 익원공파 충민공 종회장 재관님 재
식님, 재택님 부부가 참석하였다.

「기사·사진 제공 논산종친회 충무 재택」

	향사 선조님	향사일	장소	비 고
1	忠烈公(諱 方慶)之墓 (중시조)	음 10. 9 (양 11. 30. 일)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 (능동)	(02)2244-3717 (대종회) (054)855-2688 (재실-봉회)
2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之壇	음 10. 9 (양 11. 30. 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화곡리 660	(02)2244-3717 (대종회) (054)853-0541 (재실-봉회)
3	文英公(諱 恂)之墓	음 10. 7 (양 11. 28. 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29-1	(031)424-5292 (재실-재영)
4	密直司事公(諱七祐)之壇	11월(양) 첫째 일요일 (양 11. 2. 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작2리 산27	010-3218-5556 (재영-회장)
5	開城尹公(諱 七霖)之壇	10월(양) 둘째 일요일 11:00 (양 10. 12. 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1	010-5215-6752 (이경-회장)
6	掌令公(諱 玖)之壇, 典書公(諱 成牧)之墓	음 10월 初丁日 (양 12. 2. 화)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496-1(학당부락)	011-422-8880 (승회-회장)
7	副使公(諱 天順)之壇	음 10. 16 (양 12. 7. 일)	충남 흥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010-2743-1855 (원호-회장)
8	文溫公派 良問公(諱 承澤)之壇 平章事公(諱 昂)之壇 文溫公(諱 九容)之壇	10월(양) 셋째 일요일 (양 10. 19. 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금수정)	010-3663-0543 (영환-회장)
9	安靖公(諱 九德)之墓	음 10월 첫째 일요일 (양 11. 23. 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립리 44	010-4812-1763 (홍기-회장)
10	都議府議公(諱 九鼎)之墓	음 10월 둘째 일요일 11:00 (양 12. 17. 일 월 11. 16.)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57 (행촌)	010-6663-7088 (재정-회장)
11	文肅公(諱永瞻)之壇 上洛伯公(諱 鎭)之壇 提學公(諱 益達)之壇	음 10. 6 (양 11. 27. 목)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0-1	011-487-3551 (태옥-회장)
12	貞簡公(諱 永煦)之壇 領三司事公(諱 藏)之壇 按廉使公(諱 土廉)之墓	음 10. 5 (양 11. 26. 수)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167	010-3482-3158 (태문-회장)
13	翼元公(諱 土衡)之墓	음 10. 6 (양 11. 27. 목)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14-2	(02)836-5631 010-9189-4078 (만길-사무국장)
14	掌令公(諱夔)之壇 書雲觀正公(諱 綏)之壇	음 10. 1 (양 11. 22. 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42-5	(02)849-1750 010-5760-6398 (규은-사무국장)
15	正議公(諱 哲)之壇	음 10. 8 (양 11. 29. 토)	경북 안동시 일동면 증평리 431	010-3752-5403 (원식-회장)

승조돈목을 위한 석한 익원공파종회장 초청 모임



2014. 5. 15(목) 14:00-16:00 광
장동 인성하이테크(주) 옥상에 마
련된 가든에서 석한 익원공파 종
회장 초청 종친 원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모임이 있었습니다.

대종회장님을 비롯하여 명예회
장님, 고문님 등 20여 분의 초청
종친님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
기 속에서 준비된 음식을 즐기면
서 담소를 나누고 종회 발전 및

종친간 돈목의 증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성하이텍(주) 회장이며 보인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석한 익원공
파종회장께서 성심껏 준비하신 귀한 음식과 주류 등을 광나루에서 불

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잘 가꾸어 놓은 옥상 정원에서 즐기게 되니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일가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석한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기사제공 상근」



[사]세계예술교류협회 총재에 취임

김법혜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譜名 泰完 提學公派 生員公 宗孫])은 4월 23일 외교
통상부 (사)세계예술교류협회 총재에 취임하였다.

세계예술교류협회는 1993년 3월에 창립하여 세
종문화회관 등에서 한민족통일국악예술제를 매년
거행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 서울, 제주, 전남,
전북, 강원, 경기, 국내 15개 지부와 브라질, 미

국, 중국, 일본 해외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 전통예술선양 발전에 기
여하고 있다.

금년에는 김법혜 스님이 총재로 취임하면서 대회를 10월경 서울에
서 개최하여 국악인 발굴 양성, 전승을 하게 되며 종합대상에는 대통
령상과 대상에 통일부장관상, 최우수상에는 민주 평통사무처장 상이
주어진다.

한민족통일국악예술제에는 유명 국악인이 출연하여 8道에 민속
국악을 공연하여 국악 예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홍보에 기
여하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소식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보물 제1830호로 지정



문화재청이 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안동김씨 문온공파 대종회의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1828호로 지정된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은 여말 선조에 유행한 보살상의 한 형식을 보여 주며 보물

1829호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제작시기(1650년)와 조각가(무염)를 알 수 있어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물 1830호로 지정된 김명리 묘지는 조선시대 성천도호부 부사를 지낸 김명리의 가계와 이력을 적은 묘지로, 조선 초기 역사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제공」

**조선국 봉정대부 성천도호부부사 겸 권농부사 안주좌익병마단련부사 김공 묘지
(朝鮮國 奉政大夫 成川都護府副使 兼 勸農副使 安州左翼兵馬團鍊副使 金公墓誌)**

공(公)의 성은 김씨(金氏)요, 휘(諱)는 명리(明理)로 안동인(安東人)이다. 신라왕 김부(金傅)의 15대손으로 고려시대 시중(侍中)을 지내고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으로 추봉된 방경(方慶)의 5대손이다. 증조의 휘는 승택(承澤)으로 직량동덕좌리공신(直亮同德佐理功臣)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를 지내고 양간공(良簡公)의 시호(謚號)를 받았으며, 할아버지의 휘는 묘(昴)로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 행(行) 중대광(重大匡) 상락군(上洛君)에 추봉되었다.

아버지의 휘는 구용(九容)으로 봉익대부(奉翊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을 지냈고, 어머니는 봉익대부(奉翊大夫) 밀직부사(密直副使)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상호군(上護軍) 행(行) 통직랑(通直郎) 예의정랑(禮儀正郎)에 추봉된 남양(南陽) 홍의원(洪義元)의 따님이다. 홍무(洪武) 원년인 무신년(戊申年: 1368, 공민왕 17) 2월 14일 을묘일(乙卯日) 공을 낳았다. 공의 나이 9세인 병진년(丙辰年: 1376, 우왕 2)에 음보(蔭補)로 총릉직(聰陵直)을 제수하였고, 15세에 이승적(李升商)과 함께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갑자년(甲子年: 1384, 우왕 10) 봄에 선고(先考: 죽은 아버지)께서 판전교(判典校)로 요동문례사(遼東聞禮使)를 맡아 가서 조회(朝會)했다. 본국(本國: 고려)에서 바치는 말이 기일 안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교공(典校公)께서는 천위(天威: 천자의 위엄)를 저촉한다는 이유로 대리위(大理衛)에 유배되던 중에 병을 얻어 여차(旅次: 여행중의 숙박)에서 돌아가셨다. 공은 상중(喪中)에 애훼(哀毀)하면서도 예법을 준수하였고, 복(服)을 마치자 황현(黃鉉)과 함께 생원시(生員試)에 응시하여 제 4인으로 급제하였다.

이어 낭장(郎將) 중랑장(中郎將)을 제수하고, 여러 자리를 거쳐 사헌감찰(司憲監察) 호조좌랑(戶曹佐郎) 사헌지평(司憲持平) 호조정랑(戶曹正郎) 등에 이르렀다. 일찍이 외직으로 나가 진주목관관(晋州牧判官)과 지목주군사(知沃州郡事)를 지냈다. 공은 치읍(治邑)하는데 너그러움과 위엄을 겸비하여 다스리니 이속(吏屬)과 백성들이 외애(畏愛)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오게 되자 두 고을의 백성들은 모두 도로에 나와 체읍(涕泣)하기도 하였다.

조정으로 들어와 도관(都官) 정랑(正郎)을 지내고 갑자기 호조(戶曹)로 옮겼다가 군자소감(軍資少監)으로 승진했으며, 또 외직으로 나가 경기경력(京畿經歷) 경상도경력(慶尙道經歷)을 역임하고 돌아와서는 경창부소윤(慶昌府少尹)을 제수했다. 얼마 후에는 잠시 쉬고자 광주(廣州) 탄동리(炭洞里)에 퇴거하여 스스로 탄곡야수(炭谷野叟)라 이름하였다. 이로부터 여러 차례 징벽(徵辟: 관리로 등용하기 위하여 부름)하였으나 모두 힘써 사양하여 나가지 않았다. 선덕(宣德) 무신년(戊申年: 1428, 세종 10) 다시 공을 성천도호부부사(成川都護府副使)로 삼았으나 또 힘써 사양하여 면하고자 했으나 사면을 얻지 못하였다. 그해 겨울 병을 평계하여 해입되어 또 탄동(炭洞)에 머무르다가 정통(正統) 무오년(戊午年: 1438, 세종 20) 겨울 12월 23일 병을 얻어 집에서 돌아가니 공의 나이 71세였다.

부인 이씨(李氏)는 공에 앞서 죽어 영락(永樂) 기축년(己丑年: 1409, 태종 9) 겨울 광주(廣州)의 둔촌(菴村) 목동산(木洞山) 임좌병향(壬坐丙向)의 기슭에 장례했다. 기미년(己未年: 1439, 세종 21) 겨울 12월 16일 경인일(庚寅日) 같은 무덤에 장례하니[부인의 묘는 남쪽에 있다] 공의 유교(遺教)에 따른 것이다.

공은 천성이 관후(寬厚)하고 풍의(風儀)가 위중(威重)하여 다른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부귀(富貴)를 힘쓰지 않았다. 자제가 과실이 있더라도 비록 즉시 책망하지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외복(畏服)하였다. 의복은 반드시 검소하게 하였고, 음식은 반드시 정선하였다. 겨울에는 한기(寒氣)가 있어도 난로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여름에는 무더위에도 부채를 쓰지 않았다.

평소에는 반드시 조금의 게으름도 없이 날마다 서사(書史)로서 스스로 즐겼고, 일찍이 화초(花草)를 심어 아침저녁으로 손수 물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일과(日課)”라고 하였다. 매양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새벽부터 반드시 친구로서 맞이하여 술상을 차려 극진하게 환대하였다. 사람들에게 흰머리가 모진(冒進: 함부로 나감) 한 것을 보이면서는 말하기를 “늙으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재화(財貨)를 늘린다는 것을 들으면 말하기를 “이는 원한을 모으는 길이다. 벼슬의 영달(榮達)을 구하지 말고 생산(生產)에 열중하지 말라”고 하였다.

부인 이씨는 단성보리익찬공신(端誠輔理翊贊功臣) 중대광(重大匡) 계림군(雞林君) 시(謚) 문정공(文靖公) 제정(霽亭) 달충(達衷)의 딸로 3남 4녀를 낳았다. 장남은 맹현(孟獻)으로 조봉대부(朝奉大夫) 전농소윤(典農少尹) 지제교(知製教)인데 병오년(丙午年: 1426, 세종 8)에 급제하였고, 차남은 중서(仲舒)로 승사랑(承仕郎) 전구부승(典厩副丞)인데 무오년(戊午年: 1438, 세종 20) 생원시에 급제했다. 다음은 계우(季友)로 무공랑(務功郎) 예문봉교(藝文奉教) 겸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인데 병진년(丙辰年: 1436, 세종 18) 급제했다. 딸 중 장녀는 사재직장(司宰直長) 권훤(權烜)에게 출가했고, 다음은 좌군사직(左軍司直) 남경복(南景福), 다음은 사선직장(司膳直長) 김철산(金鐵山), 다음은 중군부사직(中軍副司直) 최선문(崔善文)에게 출가했다. 소윤(少尹: 孟獻)은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사검(李思檢)의 딸을 취하여 3남을 낳으니 자정(自靖) · 자양(自壤) · 자육(自堵)인데 어리며, 3녀도 두었는데 장녀는 유학(幼學) 윤기(尹沂)에게 출가했고 나머지는 어리다. 부승(副丞: 仲舒)은 중훈대부(中訓大夫) 합천군사(陝川郡事) 김초(金礎)의 딸을 취하여 1남을 낳았는데 자완(自烷)으로 어리다. 봉교(奉教: 季友)는 선략호군(宣略護軍) 곽중의(郭仲儀)의 딸을 취하여 1남을 낳으니 자균(自均)이며, 1녀도 있는데 모두 어리다. 사재(司宰: 權烜)는 5남을 낳으니 국(掘)은 생원이고, 손(損) 광(擴) · 정(損) · 포(抱) · 통(摘)은 어리며, 1녀는 별시위(別侍衛) 이맹지(李孟智)에게 출가했다. 사직(司直: 南景福)은 3남을 낳으니 분(盼) · 장(暉) · 난(暖)으로 어리며, 3녀중 장녀는 유학(幼學) 곽신(郭伸)에게 출가했고 나머지는 어리다. 사선(司膳: 金鐵山)은 4남을 낳았는데 국광(國光)은 생원이고 겸광(謙光) · 정광(廷光) · 경광(景光)은 어리고 2녀도 어리다. 국광(國光)은 호군(護軍) 황보신(黃保身)의 딸을 취하여 1남을 낳으니 유(惟)이고, 1녀도 있는데 모두 어리다. 부사직(副司直: 崔善文)은 4남을 낳으니 한공(漢公) · 한후(漢候) · 한백(漢伯) · 한남(漢男)으로 어리며, 3녀중 장녀는 부사정(副司正) 여인보(呂仁甫)에게 출가했고 나머지는 어리다. 인보(仁甫)는 1남을 낳으니 범(範)인데 어리다.

소윤(少尹: 孟獻) 봉교(奉教: 季友)는 모두 나의 동년 벗으로, 소윤이 와서 지문(誌文)을 청하는데 애절하였다. 나는 소윤과 함께 학문한 동업(同業)이자 동사(同仕)이며, 재차 동맹(同盟)을 하여 교분이 이미 두터웠던 지라 감히 졸문(拙文)을 사양하지 못하였다.

정통(正統) 4년 기미년(己未年: 1439, 세종 21) 겨울 10월 하순 종훈대부(中訓大夫)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지제교(知製教)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 완산(完山) 유의손(柳義孫)은 삼가 짓다.

행자(行者) 학민(學敏) 산직(山直) 단동(丹同)

탈초: 김영환/안동김씨문온공파종회장

교열: 김성한/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관

자료인용 : [김학(안동김씨문온공파)합장묘 출토복식] 2007.2.경기 도박물관

'의성 만취당'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 경북도 문화재 위상 격상,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



경상북도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신청한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69호 '의성 만취당'이 6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25호로 승격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된 '의성 만취당'은 퇴계 이황의 제자 만취당 김사원이 학문을 닦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이곳을 찾은 온계 이해, 서애 류성룡 등 많은 인사의 시문이 남아있고, 현관은 석봉 한호의 친필이다.

건립 당시 마루와 난간으로 이루어진 평면이었으나, 1727년(영조 3) 건물 동편에 방 두 칸을 증축했고, 1764년(영조 40)에 서쪽에 방 한 칸을 증축 현재의丁자형 평면을 가지게 됐다.

누형식의 11칸 대청을 둔 평면형식으로, 조선 전기 상류계층을 중심

참고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① 보물 및 국보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요민속문화재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지정문화재

①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紀行民調詩

閑山 統營

- 金運中 -

물길도 깨끌막한
동백숲하늘,
꼬리단 매물섬,

흰벼랑 파랑물떼
박하향구멍,
가슴통 숨틔기.

紀行民調詩論 - 전 문인협회 이사장 申世薰

기행민조사시 〈閑山 統營〉은 섬관광 매물섬 기행詩다.

여기에 임진왜란을 떠올리는 閑山島와 당시 해군 수영 사령부가 있던 옛충무의 統營市 앞바다. 그 통영앞바다의 지리 풍경과 물길 분위기를 시적인 정형그릇에 심상그림쪽으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3.4.5.6.조의 2수 각 3행 2연으로 한산섬 앞바다의 노량 해협이나 그 인근 바다물밭길은 “깨끌막한” 물길이다. “깨끌막한”은 “가파로운”이란 뜻이다. 이 가파로운 물길에 왜선들은 이순신 전술 앞에서 한없이 무너진 것이다. 한산, 통영 바로 이곳이 지금은 “동백숲하늘”이다. 그리고 매물섬 하나가 꼬리를 달고 하늘과 바다사이에 누워있다. (1수) 한산, 통영을 관광하면서 옛전장을 그려보고 있는 詩이다. 그것도 핏빛동백숲과 시퍼런 바다위의 희뿌연 전쟁하늘을 견주어 가면서 말이다. 둘째 수는 옛 한산섬과 통영 그리고 매물도를 떠나 엉뚱한 비유로

으로 주택 안에 누를 두는 것이 보편화되고 평면 규모가 상당히 큰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민가 건물로는 드물게 고급의 장식 수법을 보이는데, 보아지의 파련 장식, 대들보 위의 화반형 동자주,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과 옥산서원 독락당과 유사한 형태의 대공 장식 등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문화재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도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중 역사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 사이 안동 봉정사 대웅전을 비롯 국보 3건, 보물 11건, 중요민속문화재 8건 등 총 22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성규 도 문화재과장은 “이번에 승격된 의성 만취당을 문화재청 및 의성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가치 있고 문화재에 대해 주기적으로 등급조정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지정문화재의 위상을 격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②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무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③ 기념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⑤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딴전 심상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흰벼랑 파랑물떼”라는 3.4조로 시작해 5조에서는 느닷없이 “박하구멍”이 나온다.

이는 “파랑물떼와” 흰벼랑과 관계가 있다. “파랑”은 파도라고도 볼 수 있으나 “파랑물떼새의”의 그파랑 물총새 같은 물새의 이미지도 풍기고 있어 흰벼랑에 파인구멍 즉 물총새 같은 물떼새의 벼랑구멍집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흰벼랑은 또한 파랑물떼새의 둉지를 둔 벼랑으로 그 새들의 오물 흔적으로도 추정할 수가 있다.

기행이란, 관광문학이란 원래 보고 읽는 독자몫이 그러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박하향구멍”은 곧 물총새의 흰벼랑집이다. 그답답숨구멍집은 박하냄새로 시원히 콧구멍을 틔워 줄 수 있는 것만큼의 답답한 “가슴통”을 시원히 틔워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랑물떼”가 나오고 “흰벼랑”, “박하구멍”이 시어로 동원된 것이 아닌가. 한산, 통영 앞바다에서 “가슴통”이나 후련하게 숨통이라도 한번 크게 틔우기 위해서 民調詩 “한산·통영”은 다시 그래서 시인의 가슴으로부터 정리된 언어로 불려나온 듯하다.



*1950慶北 義城 沙村 출생(安東金 忠烈公 金方慶27世孫)

*서울城南高尙業.檀國大 日文學士.漢陽大 大學院 經營學碩士.

*롯데제과(株)해태제과(株)勤務 現 팔방교역 代表

*2006 제109회 月刊文學 신인상 民調詩部 당선

*한국유네스코 서울협회理事.국제로티리3650지구 남솔로 타리크럽 제14대會長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現)

*著書 紀行民調詩集1 地球行(2007.도서출판 天山)

紀行民調詩集2 이리랑땅(2009.도서출판 天山)

紀行民調詩集3 천산을 날으며(2010.도서출판 天山)

白凡 金九先生 第65周忌 追慕式 舉行



2014. 6. 26(목) 10:30 백범 김구 선생 제65주기 추모 행사가 백범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김신님, 국회의장 정의화님, 전국무총리 이수성님 전국회의장 이만섭님 외 많은 귀빈들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님과 종친 50여 명, 300여 추

모객이 참석하여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 式辭 및 追慕辭. 숙명여대합창단의 추모가 합창, 현화 순으로 추모행사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평생 조국의 독립과 자주 평화통일에 모든 것을 바친 민족의 지도자 격례의 큰 스승 김구 선생의 65주기를 맞아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명복을 빌며 행사를 끝내고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에 참배 분향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었다.



2014년도 안동김씨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 제7차 정기총회 개최



2014년 5월 17일 11시 종로3가 청수장에서 안렴사공파 수도권 종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종회장님을 비롯 안렴사공파종회장님 그리고 제학공파 수도권종회장님 등 내외귀빈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태룡회 장님의 사회로 새로운 춘식(春植)회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춘식회장님의 수락 연설에 이어 내빈축사는 봉회 대종회장님과 태문 안렴사공 파종회장님께서 해주셨고 형남 감사님의 감사보고와 심의 안건인 2013년도 결산보고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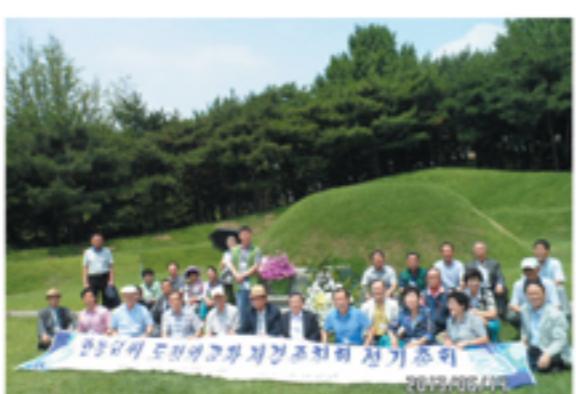
새로운 입원진 구성은 회장님한테 위임하고 감사는 제청에 의해서 현 형남 감사가 재추대되었습니다.

기타토의 및 안건으로는 조속한 족보수단 마련과 파종회에서 지역별 소종회 탑방을 금년 6월부터 실시한다고 파종회장님께서 공지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총회가 순조롭게 마감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알차고 뜻깊은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제공-진회」

2014년도 도평의공파 재경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도평의공파 재경종친회(회장.元重)는 2014년 6월 14일(토) 10:00 종친 백범 김구 선생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에서 정기총회 겸 야외모임을 가졌다.

효창공원 창렬문 안쪽 풍광이 좋은 정자 밑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정겨운 대화를 나눌 즈음에 모인 회원 40여 명은 인근 백범기념관 전시실로 향하였다. 담당 학예사의 안내와 자상한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실 관람과 영상자료 등을 뜻깊게 감상하니 금방 1시간이 지나갔다. 그 순간 모두들 나라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애국자가 된 느낌이었다고 한다.

곧바로 인근에 있는 백범 묘소를 향해 미리 준비해간 조화(꽃 바구니)를 선생의 묘소에 바친후 전원 묘소를 참배하는 행사를 가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종친들이 늘고 있어 더 고무적이었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았다.

이후 주변 식당으로 이동하여 대회 부회장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고인이 되신 종친들께 묵념으로 시작하여 참석내宾 및 종친소개, 원중 회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봉회 대종회장의 축사, 태선 제학공파수도권종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특히 관북 대종회 고문, 상근 대종회 사무총장의 참석으로 자리는 더욱 빛이 났다.

이어서 경과보고, 회계보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동의하고 감사보고가 있은 후 입원 개선 및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 결과 임기가 끝나는 원중 회장을 만장일치로 다시 연임결정한 후 감사 두분 중 일수 감사를 연임하기로 하고 건강 등의 사유로 연임을 사양한 진 감사 후임에 당수 종친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명칭을 “안동김씨도평의공파수도권종회”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타 토론 후 친목을 다지는 화기애애하고 뜻깊은 모임이었다. 또한 즉석에서 봉회 대종회회장, 중북 관서공종회장(금일봉 보내움), 태선 제학공파수도권종회장, 상근 대종회사무총장의 금일봉이 있었으며, 그 외에 여러 종친들의 상당한 찬조가 있어 용기를 주고 본회의 위상을 더한 것 같았다.

특히 원중 회장의 인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은 사촌 만취당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1825호)로 지정되어 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도평의공파 재경종친회 사무국장 김우희 제공」

안동김씨 인천광역시 종친회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2014.6.21(토) 11:00 안동김씨 인천광역시 종친회 정기총회가 주안 소재 제주흑돈가 음식점에서 성황리 개최되었다.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봉회님을 비롯하여 관북 고문, 제학공파 수도권종회장 태선님 외 내빈들과 인천종친회 고문님, 입원님,

종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식총무님의 진행으로 국민의례, 참석자소개, 춘교회장님의 인사말씀, 대종회장님, 제학공파수도권종회장 태선님 축사가 있었고 기성 명예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유공자 표창을 하고 감사보고 후 안건상정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결산보고 예산안 승인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박수로 승인하고 입원 선임은 춘교 현회장님의 연임으로 결정하였다.

신임 총무이사는 헌덕님이 추대되었고 그 외 입원 추대가 있었다.

행운권 추첨 등 화기 애애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여 식사와 주류 등 준비된 음식을 즐기며 돈목의 시간으로 정기총회를 성료하였다.

충무공 김시민장군 동상 건립



2014년 5월 30일 오후 2시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508에서 임진왜란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 충무공김시민장군동상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김법혜 추진위원장, 기관장, 안동김씨종친회, 시민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성무용 천안시장의 제막식사와 김법혜 위원장의 식사, 양승조 국회의원, 최민기 천안시 의회의장 김봉희 안동김씨대종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문화관광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제막을 하여 천안에 충절의 랜드마크가 탄생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도비 4억원, 시비 2억원)

사업기간: 2014. 1. 17 ~ 2014. 5. 30

동상규모: 11.2m(기단부 5.5m, 동상 5.7m)

동상중량: 약 16.9ton 석재 15.3ton

작품재질: 브론즈(청동), 석재 스테인레스 등

추진현황:

- 2010. 8 김시민장군동상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법혜 스님)
- 2011. 7 김시민장군동상 건립 건의 (추진위: 천안시)
- 2012. 3 김시민장군동상 건립 정책방침 결정(천안시)
- 2012~2013: 도비, 시비 확보 추진
- 2013. 3 김시민장군동상 건립 위치 확정(삼용동 508번지)
- 2014. 1: 동상건립공사 착공 / 2014. 5. 30: 준공

김시민장군연표:

- 1544. 9. 23 충남 목천현 백전촌(현. 병천면 가전리) 출생
- 1592. 7. 26 진주목사 임명(임진왜란)
- 1592. 4. 13) 1592. 9. 5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
- 1592. 10. 18 왜군의 총탄에 맞아 순직(향년 39세)
- 1711: 충무공 시호 하사(숙종 37년)

김봉희 대종회장은 김시민 장군의 공적을 잘 받들고 후대에 길이 계승하며 그동안 동상 건립에 애쓰신 김시민장군동상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태완 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우리고장 출신 김시민 장군의 업적을 정확히 알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김시민 공원이 시민 화합을 다지는 상징공원이 되어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민 장군 동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진주성 성내에 건립된 높이 7m 규모의 동상이 유일한 것이며 표준영정은 괴산군 충민사, 초상화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기사제공 김시민장군동상건립추진위원회 기획실장 김태영」



대구 청장년회 김시민 장군 동상 참배



6월 1일 안동김씨 대구 청장년회 45명은 천안시에 소재한 김시민 장군 동상에 참배하고 김태완 김시민장군 동상건립추진위원장의 장군의 업적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주변 스토리텔링 공원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상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

구 삼용동 508번지

「기사제공 김시민장군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기획실장 김태영」

정의화 국회의장 김시민장군 유허지 방문

2014년 7월 12일 13시 30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충무공김시민장군 생가지 방문 행사에 정의화 국회의장,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 황인자 국회의원, 구본영 천안시장과 안동김씨 종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가 2006년 9월부터 추진한 김시민장군 유허지 정비 및 생가지 복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총사업비 38억원)를 갖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유허지를 복원, 정비 성지화하여 호국충절의 혼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함을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 의원과 함께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며, 행사 전 북면 상동리 고향식당 오찬장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김태완 상임의장의 건의를 받고 구본무 천안시장이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호국벨트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국회 차원에서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며 김태완 상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5월 30일 제막식을 가진 충무공김시민장군동상 사진을 전달하고 김봉희 안동김씨대종회 회장은 충렬공 김방경 장군 논문집과 자료집을 증정하였습니다.

제학공파종회 김태옥 회장은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영인본을 증정하였습니다.

안동김씨 제학공파종회에서는 김시민 장군 유허지에 간이 행사를 마련하고 안내하였으며 사업에 대해서는 천안시 문화관광과장이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외빈은 국회의원 황인자, 양승조, 임명섭 공동의장과 내빈은 대종회 김봉희 회장, 김영묵 문영공회장, 김태옥 제학공파종회장 김정웅 천안종친회 회장과 정상철 충남대학교 총장, 강일구 호서대학교 총장, 곽정현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 종친 60 여명이 참석하여 정의화 국회의장을 환영하였습니다



▲ 복원계획 설명 천안시 문화관광과장



▲ 정의화 국회의장 담례인사



▲ 내빈소개 태완 상임선양회장



▲ 공신교서 전달



▲ 충무공 김시민장군 생가지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기념 단체사진

알림 대종회 고문 성수(聲秀)님 許音(부음)

대종회 고문(顧問)이시고 전 도령의공파종회장님께서 5월 28일 別世 하셨습니다. (향년 89세)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빈 소 :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 발인 일시 : 2014. 05. 30(금) 08:00
- 장 지 :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선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재

柏田忠烈祠 創建實蹟[백전 충렬사 창건실적] ②

柏田忠烈祠 創建實蹟[백전 충렬사 창건실적]

- 建院之議無世無之 事未意成矣 至甲申「사당을 세우려는 논의는 어느 대에나 없었던 적은 없었으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신년에 이르러」
- 木川多士 先呈本縣 道內章甫 齊訴春曹「목천의 많은 선비들이 먼저 본현에 고하고 도내의 선비들이 함께 예조에 소청하여」
- 先爲龜巖先生 發關營邑 建祠設享「먼저 구암선생부터 영읍에 공문을 내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 後 翱年 乙酉 又配 忠武公 柏谷公 竹溪公 三先生 「다음해인 을유년에 다시 충무공, 백곡공, 죽계공 세 분 선생을 배향하니」
- 一門同配四賢「한 집안에서 네 분의 선현이 함께 사당에 배향되었다.」
- 百世有光而後孫禹元殫誠竭力奔走京鄉「백세에 빛날 일임에 후손 우원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서울과 지방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 意遂累世之願然若非各處諸孫拜力同心能如是乎「"(사당을 세우려는)뜻은 이미 여러 대에 걸친 소원이었으니 각처의 모든 후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 略錄營邑及春曹文狀與題辭 欲爲壽傳書于家乘之末「간략히 영읍과 예조의 문장 및 제사[題辭]를 적어 여러 대에 전하고자 집안에 전해오는 족보 끝에 달아둔다.」

本縣題辭「본현제사」

- 題曰 (題辭를 내려 말하기를 :)
- 行義之卓越何限而 忠孝兼全「의를 행함이 뛰어나기 한량없고 충효를 겸비하였으니」
- 未有若是之炳然也「이만큼 빛나는 사람이 없다.」
- 可以欽慕於百代之下「가히 백 대 뒤에도 흠토할 만하다.」
- 而設祠一款 所重自別「따라서 사당을 세우자는 안건은 중대하기가 남다르므로」
- 非一縣官 所狀敢擅 行者向事「이는 일개 현에선 감히 멋대로 나서 행할 일이 아니다.」

禮曹題辭「예조제사」

- 題曰 (題辭를 내려 말하기를 :)
- 龜巖先生之道學忠孝 今有鄉社俎豆¹⁾ 之禮 尚云晚矣「구암선생의 도학과 충효를 지금에야 향사에서 제사하는 것은 오히려 늦었다 할 수 있다.」
- 况乎花巖配食 曾有成命²⁾ 則殆無異於賜額之院「하물며 화암서원에 배향하는 일은 일찍이 성명이 내린 바가 있어 사액서원과 거의 차이가 없으니」
- 香幣之自本官封進 院屬之依例定給 事理當然「그 제사 비용을 본관에서 올리고 원속(서원의 일을 보는 자)이 관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 依狀辭 發關該道向事「소청하는 글에 따라 해당 도에 공문을 내려 이리 하게 하라.」

禮曹題辭「예조제사」

- 題曰 (題辭를 내려 말하기를 :)
- 忠武公之 巍赫動烈 炳耀日星而「충무공의 높고 밝은 공훈은 해와 별처럼 빛나.」
- 圍成暴革³⁾ 長酒⁴⁾ 滿襟之淚「성이 포위되자 나라를 위해 전사하였으니 가슴을 적시는 눈물을 길게 흘 뿐이다.」
- 柏谷公之 文章行義 竹溪公之 章布⁵⁾ 敵愾「백곡공의 문장과 의로운 행동, 죽계공의 벼슬이 없음에도 임금을 근심하고 적과 싸우려는 의기는」
- 不墜家庭之傳 尚留儒紳之誦「없어지지 않고 집안에 전해지며 아직도 선비들의 품고 따를 바로 남아 칭송하고」
- 今於龜巖先生俎豆之所配 以三賢有光一門「오늘 구암선생의 제사에 배향

각주

- 1) 제사 때, 신 앞에 놓는 나무로 만든 그릇의 한 가지
- 2) 임금이 신하의 신상(身上)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내리는 명령.
- 3) 과혁(裹革)은 가죽에 쌌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뒤 말가죽에 싸여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의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사나이라면 마땅히 전쟁터에서 죽어 말가죽에 시체를 싸 가지고 돌아와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 4) 酒의 오기로 보임.
- 5) 章布. 누추한 옷차림이라는 뜻으로, 벼슬하기 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 己의 오기로 보임.
- 7) 《주역》〈태괘(泰卦) 단(彖)〉의 "군자를 안에 있게 하고 소인을 밖에 있게 하니,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없어진다. [內君子而外小人 君子道長 小人道消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태괘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해서 만물이 협통하게 되는 치세(治世)를 상징한다.
- 8) 64괘의 하나. 곤하간상(坤下艮上). 소인이 성하여 군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象).
- 9) 《동문선》에 실린 목은 이색(李穡)의 시 〈유감(有感)〉에 '仁義是膏梁 禮法爲笏袍' 인의는 고랑진미

됨은 세 선현이 한 가문을 빛냈기 때문이니」

- 士林公議 夫孰曰不可乎「사림의 공의(公議)가 어찌 이 일을 아니된다 하겠는가.」
- 覽此狀辭 竊爲欽歎不已⁶⁾ 「소청하는 글을 살펴보니 진실로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그칠 수 없음이라.」
- 相考施行向事「검토하여 살펴보고 일을 시행한다.」

營門題辭「영문제사」

- 題曰 粘關知悉 舉行向事「題辭를 내려 말하기를 : 공문을 보내 사정과 형편을 속속들이 알아보고 이 일을 거행하라.」
- 題 百姓訴狀書對適切處「題辭란 백성들의 소장(訴狀) 또는 원서(願書)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지시하던 글이다.」

龜巖先生奉安文「구암선생 봉안문」

- 伏以 明宣御運鴻朗熾昌 朝野彬郁君子道長⁷⁾ 「엎드려 살피건대 명종, 선조대에 군주의 운이 밝고 왕성하여, 조정과 민간이 모두 아름답고 번성하며 군자의 도가 자라났다.」
- 間或值剝⁸⁾ 復則名揚 殆三百年士林增光「간혹 소인이 성하여 군자가 어려움을 겪는 때를 당하더라도 곧 다시 (군자가) 이름을 떨치니, 삼백년 가까이 이 사람은 나날이 빛나게 되었다.」
- 猶歟. 龜巖 賢胄挺祥 偶儻志氣 理義膏梁⁹⁾ 「훌륭하여라. 구암선생은 선현의 자제로 자질이 뛰어나고 기개가 있고 뜻이 크며 도리와 정의를 귀한 음식처럼 좋아하였다.」
- 陶山門下講道升堂¹⁰⁾ 群彦麗澤餘事文章「도산 문하에선 도를 강의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하였고, 웃 선비들과 서로 도와 학문과 품성을 닦으며 시간이 남으면 문장을 지었다.」
- 宏辭正議褒博¹¹⁾ 游庠 首斥妖髡血疏叫闖¹²⁾ 「뛰어난 글과 올바른 의론으로 학교에서 선비들을 사귀고 앞장서 요승(妖僧)을 배척하고 피로 상소하여 궐문 앞에 올바른 길을 부르짖었다.」
- 學士躬儉松歌淚滂 壁書峨簪網彌張「학사의 시신을 몸소 염하여 장송가(長松歌)를 지으니 눈물이 비처럼 흐르고, 물여우와 전갈 같은 간악한 무리들의 그물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음을 벽서를 붙여 비판하였다.)」
- 甘心黨籍削跡湖鄉 事母讀書升載投荒「당적¹³⁾에 오른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호남으로 내려가 자취를 감추고, 어머니를 모시고 책 읽으며 스무 해를 활아에서 보냈으나」
- 高峰拔茹濟濟明良 笏冠繡衣不次登颺「높은 봉우리는 뿌리 뽑히더라도 높게 빛나며 뛰어나니, 홀과 관, 수놓은 관복이 고관대작에 뒤지지 않았다.」
- 望風墨綬刺口皂囊¹⁴⁾ 毛生慙屈海郡扶將「수령을 우러르며 자주 간언하는 상소를 올리고, 문필로서 먼 땅에서도 국사를 보필하였다.」
- 奉楓而歸穹壤茫茫 閨制二日竟不勝喪¹⁵⁾ 「부모님 상을 치르러 돌아오니 천지가 아득하고, 상을 마친 지 이틀에 상을 당한 슬픔으로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다.」
- 維忠維孝卓絕流芳 文肅忠武阿弟阿郎「오직 충과 효가 뛰어나 향기로운 이름 날리니, 문숙공은 동생이요 충무공은 그 아들이라.」
- 至于昌城一室綱常 教掖攸致風韻采彰「창성 온 집안의 강상의 도리에 대해 말하자면, 가르침이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었다.」
- 花巖許配 儒議靡遑 禮當祭社栢田蒼蒼「화암서원에 배향을 윤허한 것은 예가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하고 백전이 올창하다는 유림들의 논의가 쉴 새 없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 多士齊誠翼彼虹梁 載講躋儀衿佩肅蹕「많은 선비들이 정성을 모아 큰 집을 받치는 굽은 들보를 덮고, 서원에 배향하는 의례를 강구하고 옷깃을 가지런히 하고 걸음을 엄숙히 하였다.」
- 鵲峰嵯峨龜水洋洋 吉蠲處侑萬代瞻仰「작봉(鵲峰)은 가파르고 구수(龜水)는 드넓으니, 상서로운 곳에 배향하고 만대를 우러러 사모한다.」

로 여기고 예법으로는 홀과 도포를 삼는다.'는 구절이 있다.

10) 升堂入室은 마루에 올라 방으로 들어온다는 말로 학문(學文)이 점점 깊어짐의 비유이다.

11) 褒衣博帶. 넓은 옷에 큰 허리띠를 두른 점잖은 선비.

12) 闖은 闖闖. 대궐의 문. 한유(韓愈)의 〈착착(覩覩)〉 시에 "구를 헤치고 창합에 부르짖어, 뱃속을 열어서 낭간을 바치련다.[排雲叫闖闖 披腹呈琅玕]" 한 데서 온 말인데, 이는 곧 세상을 다스리는 훌륭한 방책을 내놓는다는 뜻이다.

13) 을사사화의 당인의 명부

14) 비밀스러운 일을 임금에게 아뢸 때 밀봉한 소(疏)를 싸서 올리던 검은 보자기로, 후한(後漢) 말에 임금이 채옹(蔡邕)에게 재변을 막을 계책을 적어서 검은 보자기에 싸서 올리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후대에는 일반적인 상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15) 상사로 인한 슬픔을 이겨 내고 몸을 보존함.

「다음호에 계속▶」

안사연(安史研) 연수회

- 일시 : 2014년 3월 8일(토) 14:00~18:00
- 장소 : 안동김씨대종회관 5층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휘경동 112-49)
- 참석 : 안사연 및 종인 50여 명
- 강사 : 김영환 안사연 회장

안사연(安東金氏歷史研究會)에서는 2014년 상반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8일 오후 대종회관에서 안사연 회원 및 종인 50여 명이 참가하여 '제례의식(祭禮儀式)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이 날 연수회는 2013년 8월 제1회 여름캠프 이후 실시된 행사로서 <제례(祭禮)와 창흘(唱笏) 및 독축(讀祝)>을 주제로 시행되었다. 2013년 5월 3일 안사연 재창립 당시 매년 4회(입춘·입하·입추·입동에 즈음한 적당한 날) 정기 모임을 갖기로 결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면면히 이어온 우리 문중 고유의 제례의식을 젊은 세대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종인들이 어렵게 여기고 있는 제례의식 절차와 이에 따른 진설법과 창흘 및 독축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좀 더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날 봉회 대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경향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신 데 대한 감사 말씀과 함께 안사연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내용이 충실했던 자료집까지 준비한 점을 높이 치하하였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행사이자 진지한 연수회가 되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영환 안사연 회장은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한 안사연 회원들과 참가 종인들께 감사 인사를 하는 한편, 부족한 점이나 소문중에서 시행 중인 제례의식과 다른 점이 있으면 연수회가 종료되기 직전 진지하게 토론함으로써 우리 문중 고유의 제례의식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안사연에서 준비한 연수 자료집을 보면서 영환 회장의 강의를 경청한 뒤 직접 진설법과 창흘 및 독축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종회장 인사말씀



▲ 강의중인 안사연 회장



▲ 자료집을 살펴보며 강의를 듣는 종인들



▲ 진설법 실습



▲ 창흘 및 독축 실습



▲ 창흘 및 독축 실습

祭祀時 헌관의 헌작에 대한 문의

<질문 작성자 송○○. 작성일 2014/06/20/>

제례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시는 선생님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제사에 대한 모르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하교를 바랍니다.

제사 절차중 헌작시 잔에 술을 채워서 헌작전에 향로위에 돌린후에 잔을 신위전에 올리는데 첫째: 잔을 향로위에 돌리는 절차는 무슨 뜻으로 하는 것인지요?

둘째: 돌리는 회수는 몇번을 하는것이 옳은지요? 행사에 따라 돌리는 회수가 다른지요?

셋째: 돌리는 방법은 오른쪽(시계방향)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는지요?

상세하고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성균관 전례원 답변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집작헌작(執爵獻爵) 또는 집잔헌잔(執盞獻盞)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작을 잡아서 신위 전에 작을 올린다." 또는 "잔을 잡아서 신위 전에 잔을 올린다."의 뜻입니다.
- 즉, 헌(獻)이란 "드리다" "올리다" "바치다"의 뜻인데, 이 글자를 사용하면 솔 권(虔) + 개 견(犬)을 합친 글자로 "옛날에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개를 잡아 솔에 삶아서 희생으로 바치다"의 뜻이 되었습니다. 또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다" "받들다" "임금에게 드리다"로 쓰여집니다.
- 따라서 유가의 예법에는 질문자의 말씀처럼 잔을 향로위에 빙빙 돌리는 행위는 단연코 없습니다. 당연히 횟수나 돌리는 방향도 결코 없습니다. 다만, 지방의 풍습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향로위에 술잔을 돌리는 행위는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국가제사인 원구대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조선왕릉 제향, 문묘의 석전대제에서는 헌작 또는 헌잔할 때 두 손으로 받든 술잔(작)을 제안(齧眼)이라 하여 눈 아래부분과 나란하게 하는 높이까지 공경히 받들었다가 신위 전에 올립니다.

[成均館 典禮委員 李大孝 謹拜]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충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 04. 23~07. 31)】

◎ 평생회비	• 20만원 : (都)정회(의성), (典)관교(용인), (按)영식(서울), (文)영국(용인) <계: 80만 원>
◎ 찬조금	• 10만원 : (按)두회(양평), (翼)정호(의정부), (提)태이(천안) • 5만원 : (文)용만(공주), 재희(서울), (安)원희(남양주시), (都)재진(안산), 논산시종친회 • 3만원 : (翼)재환(서울) <계: 58만 원>
◎ 통상회비	• 20만원 : (翼)월량종친회 • 5만원 : (都)정길(안산), (提)승용(서울) • 3만원 : (按)정회(대전), 이회(서울), (翼)운회(안성), (按)만석(정읍), (文)운만(서울), (提)태화(서울) • 2만원 : (文)수길(고양시), (典)제현(세종시), 수영(대전), (副)태형(철원), (翼)완식(영주), 한영(진주), 선창(서울), 상현(영주), 명회(성남시), 재현(양양), 원선(영주), 정준(인천), (安)태성(과천), (按)중회(천안), 경준(부천), 순도, 태무(서울), 영회(청주), (提)용환(대구), 원응(제천), (大)성무(보성), (都)경회(청주), 재환(서울), (郡)호영(평창), (正)재은(시흥), (?)수탁(밀양) <계: 100만 원>